

## 환자의 권리와 간호의 자율성

최 남 희  
(서울간호 전문대학 교수)

### 1. 머릿말

간호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전체로 하는 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직업으로서 간호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고 간호대상을 간호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간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권리는 무엇이고 간호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되고 실현될 수 있는가? 환자는 권리만을 갖는 것인가? 환자의 권리와 대비해서 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을 공유하는 간호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경우에 환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불확실하고 애매한 정보만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환자를 심한 불안 상태에 빠지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나누게 되는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불안상황을 야기한다. 환자에게 부과되는 많은 의학적 처치나 치료과정에 대해서 치료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일차적으로 병원의 권위 또는 지적권위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겨버린 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특히 정신과 문제를 가진 환자들인 경우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감금병동에 입원

하게 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아의 중요한 기능인 현실평가능력 즉 현실과 비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환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처치와 간호는 대상자의 현실적 자아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환자만의 현실을 그가 드러내는 단편적 행위나 사고를 통해서 추상적으로 추론해 낸 결과로서 그들의 치료방향과 간호의 내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신과 문제의 복합적 특성이다. 이러한 경우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 정신과 환자는 치료상황과 간호과정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가. 현실평가기능을 상실하여 자신의 내적현실과 객관적 사건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중적 환자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환자의 자유는 간호상황에서 얼마나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환자의 신체적 활동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구속해야 하는 경우에 간호사들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정신간호영역에서 인간중시의 간호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신과 환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간호의 책임과 자율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를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에 관한 인간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생의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인간의 권리와 삶과 죽

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간호영역에서도 윤리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뇌사를 인정할 것인가. 태아를 인간이라고 간주할 것인가. 안락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간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기 보다 그러한 질문들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간호윤리학적 고찰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겠다.

## 2. 기초적인 도덕적 원리

최근의 간호학연구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 옹호라는 부분은 간호분야에서 환자와 관련된 간호행위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옹호의 내용과 무엇으로부터 옹호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처리당하지 않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로 옹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그러한 상식적인 전제하에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간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도덕적 원리는 대체로 두 종류의 학설로 집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의무가 주어지는 간호상황에서 의무의 갈등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몇가지의 조건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불행(예컨대 교통사고)을 극복하고 균형잡힌 행복을 창출하는 간호행위는 무엇인가? 그러한 문제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의 원리는 효용성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이다. 이는 행복을 증진하려는 경향을 갖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

하는 것이다. 효용성의 원리는 두가지의 형식을 갖는다. 행동효용주의와 규칙효용주의이다. 행동효용주의는 과거경험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일반화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행동효용주의의 도덕적 원리는 상황적 탄력성을 강조하게 되며 규칙에 집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도덕적 규칙이 된다. 그러나 이 원리는 개인적 정의, 예를 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의무에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다른 하나의 효용주의적 도덕 원리는 규칙효용주의인데 기초적인 효용성의 원리와 행동의 수행사이에 중간단계를 끼워넣는다. 이는 행동이 효용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효용성을 만들어 낸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건강팀은 많은 현대적 상황에서 개인적 판단을 이끌어갈 일련의 규칙을 선택하여 그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대상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대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처치를 수행할 것인가? 응급상황을 제외한 경우에는 언제나 우선 확인된 서약을 받을 것인가? 동등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칙효용주의는 행동효용주의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효용주의와는 달리 Kant적인 도덕움이 있을 수 있다. 칸트는 결과가 행동의 옳음을 옳고 틀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도덕적으로 타당한 요인은 도덕성을 따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자유, 권리, 존엄성 등이 일반적 행복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만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도덕성은 보호적 기능과 증진적 기능을 함께 가진다. 칸트적 윤리관에는 네 종류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위협이나 악으로부터의 보호이고 둘째는 악이나 위협을 방지하는 것, 셋째는 악을 제거하는 것, 넷째는 선을 지향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들 원리는 처음이 다음을 극복하고 둘째가 세번

제의 것을 극복한다. 다시 말하면 앞의 원리가 충족되면 다음의 원리는 자동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용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결과적 이익이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입장과 개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간호학적 윤리강령 다시말하면 효용주의적 윤리강령사이에서 우리는 둘다를 포괄하여 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 환자의 권리와 의무

옹호되어야 할 환자의 권리란 무엇인가? 정당한 치료적 수단은 무엇이고,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권리의 문제를 고려할 때 두가지의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도덕적 권리이고 다른 것은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어떤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자의 권리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간호학적 도덕성에 비추어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학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윤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인 환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법적으로 옹호될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가지는 간호상황에서의 도덕적 권리중의 어떤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환자에게 중요한 법적권리 중의 하나는 정보를 알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진단과 치료와 간호과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학적·간호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현실 평가기능이 상실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정신과 영역에서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치료나 검사는 그를 가장 잘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알려져야만 한다.

또 다른 법적권리는 법에 의해서 허용된 정도까

지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으며, 또한 그러한 치료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경우에 그 불가피성의 판단은 분명히 치료팀에게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환자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기본적 윤리적 개념에 바탕하여 그러한 구급과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현실평가기능을 상실하여 내적 세계에 몰두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의학적 판정만으로 기본적인 환자의 법적권리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는 사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이다. 환자의 사례논의, 치료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등은 모두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하게 그러한 과정이 수련과정의 치료팀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신과환자의 경우 모든 개인적 비밀이 노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병동내에서의 환자생활 또한 개인이 내적으로 은밀한 부분을 거의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병적 상태에서 자신을 노출한 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환자는 자신이 개입된 연구나 실험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알 권리만이 아니라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정책이나 규칙, 환자간호의 책임과 결정권을 누가 갖는지, 자신을 돌보는 의료팀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있다면 그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서 환자는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

환자는 권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가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환자는 병을 통찰하고 병으로부터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

을 해야한다. 이는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환자의 의무이다. 치료나 간호는 생명의 질서를 이루려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도 즉 환자의 능동적인 활동과 의료팀과의 공동작업속에서 이루어진다. 환자의 도덕적 자율성은 자기책임이다.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율성에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판단기능과 현실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정신증적 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간호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 4. 간호의 자율성과 책임

간호영역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 인간됨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다. 자율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질문위에 출발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기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간호영역의 윤리적 질문은 보다 복잡적일 수 밖에 없다. 간호의 대상자 역시 자율성을 갖는 인간일 뿐 아니라 간호는 홀로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의 자율적 판단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자율적 판단을 유지할 것인가.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간호의 윤리적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의료행위라는 공동작업의 과정에서 간호사는 일차적으로 의사와 환자 가운데 누구에게 충실해야 하는가. 둘째,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보조적인 것인가. 셋째,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동의를 얻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넷째, 간호사가 환자를 강제하거나 환자를 대신해서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다섯째, 간호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가. 간호사의 판단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에게 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보다 나은 작업조건과 임금을 위해서 간호사가 동료들과 연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일곱째, 죽어가는 환자나 결함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간호사의 도덕적 의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명쾌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의 고민거리들이 실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간호상황에서는 간호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간호의 자율성은 환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인가. 또는 의사의 직무수행과 충돌해야만 하는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간호학내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비추어 언제나 자신의 윤리적 결단에 직면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일차적 책임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간호사가 옹호해야 하며 이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이다. 그러한 의무들이 성실하게 수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간호사의 자율성이 확립되고 보장된다. 간호사의 자율성은 모든 있을 수 있는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간호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간호결단에 대해서 간호사는 자기결단의 근거를 타인에게 합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권리는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 법으로 옹호되는 법적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도덕적 결단에 의한 모든 간호행위는 충실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환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환자의 의지와 역행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세심하게 관찰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치료적 도구, 신체적 억제, 투약의 내용, 정신과에서 수행되는 전기충격요법과 같은 것들은 의사의 처방이 있었을지라도 간호사 자신의 도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들이다. 환자에게의 의무가 간호

사의 일차적인 의무라면 그러한 내용들이 필연적으로 환자에게 요구되는 것인지를 간호사가 도덕적 결함이 없도록 판단하는 것이 간호의 자율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환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간호결단만이 간호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결단의 선행요인과 행위의 결과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예컨대, 물리적 강제를 시행했을 경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역행해서 자신의 신체가 처리되지 않아 할 인간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간호판단을 가능하게 한 선행요인들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상황, 활동, 억제 이유 등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억제 동안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와 권리가 가능한 만큼 충족되었는가. 억제동안 얼마나 자주 환자를 돌보았으며, 얼마 후에 억제를 제거했는가. 억제를 제거할 때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특히 그들의 정신의 자율적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자를 대신해서 간호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한 경우 간호사는 윤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결 론

간호의 특성은 간호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자유의지로 자기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간호의 전문적 활동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곤란한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의 자율성은 전문영역으로서의 가치측면에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간호사의 개인적 권리와도 얽혀있다. 더욱이 간호의 윤리적 판단의 복잡성은 환자와의 관계에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팀 사이의 갈등적 문제와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관련된 윤리적 질문들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러한 문제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자체 내의 노력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간호상황에 놓여진 간호대상자의 인권과 간호학적 권리, 그리고 간호대상자가 간호상황에 처야 할 책임 등을 보다 신중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간호사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는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하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입원과 치료를 받는 과정이 최적의 건강을 위한 긍정적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치료자로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받게 되는 간호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하기 위해서 간호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는 정직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간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호사는 환자에게 언제나 일깨우고 그러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의 개인적 권리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전히 간호상황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간호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명중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진교훈, 「의학과 철학의 대화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철학, 한국철학회, 제28집, 1987년 가을, 7-36쪽.

샤는, 디지아코모(황경식옮김), 生醫 論理學이란?, 서광사, 1989년.

Muyskens, J.L., *Moral Problems in Nursing,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Rowman and Littlefield(Totowa, New Jersey), 1982.

Schultz, J.M., and Dark, S., *Manual of Psychiatric Nursing Care Plans(3rd)* Scitt, Foresman/Little, Brown Higher Education (Glenview, Illinois), 1990.